

믿
정
실

음
진
천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각자 집에서 기도 정진

둘째주 일요일 각자 집에서 기도 정진

셋째주 일요일 11시 성도제일 철야정진 (1월 15일 입재 1월 16일 회향)

넷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법회 각자 집에서 기도 정진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증오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고
불행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네.

He who seeks happiness for himself by making others unhappy is bound in the chains of hate and from those he cannot be fre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다비식서 진정한 석주큰스님을 뵈었습니다

스님이 남겨주신 “부자 되고 행복해 지는 열쇠” 나눠 드립니다



▲ 큰스님께서서는 금정산 떠난 이방인처럼 글을 쓸 때마다 “금정산인석주(金井山人昔珠)”란 글을 꼭 써넣으시더니 이제 정녕 한줌의 재로, 한줄기 연기로 금정산에 귀토 하셨습니다.

부질없는 반문이지만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가 다시금 궁금해집니다. 생물학적으로야 어찌어찌 설명하고, 부모의 사랑이 빚어낸 금쪽같은 혈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고 감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디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화두인가 봅니다.

"응애~"하는 울음소리로 시작된 생은 "깡딱!"하고 숨 거둔다는 표현으로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으로 구분됩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많은 사고(思考)의 산물을 남겨놓은 그 많은 사람들의 위대하거나 대단한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하루 태어나는 수만의 새 생명과 함께 하는 그 무궁무진의 영혼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한국 불교계의 마지막 선지식이라 일컫던, 향년 96 세의 석주(昔珠) 큰스님 영결식이 18 일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있었습니다. 대찰 범어사를 빼곡하게 메운 수많은 참배객들의 애도 속에 전통 불교방식으로 진행된 영결식과 다비식 내내 많은 사람들 가슴에 남긴 부질없는 질문이 바로 그것, "인생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일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스님께서서는 금정산 떠난 이방인처럼 글을 쓸 때마다 '금정산인석주(金井山人昔珠)'란 글을 꼭 써넣으시더니 이제 정녕 금정산인이 되신 모양입니다. 아직은 철 이른 14 살에 출가하여 부처님 가르침 따르며 부처님 닮은 삶을 사시겠다고 가시밭길보다 험하고 힘들다는 6 년의 행자생활을 포함해 81 년간을 수행정진하던 스님이십니다.

살아생전 친정집 그리듯 그렇게 당신이 금정산인임을 흔적으로 남기시려 하더니 정녕 한줌의 재로, 한줄기 연기로 그렇게 금정산으로 귀토하신 모양입니다.

▲ 스님이 남겨 주신 “부자 되고 행복해지는 열쇠”입니다. 살아생전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삶을 내생에서도 유지하려는 듯 임종게 하나 남기지 않으셨기에 가슴에 간직해도 좋을 법한 스님의 귀한 “오유지족” 글을 보며 통곡 같은 108 배를 올립니다.

하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범어사에 마르지 않을 물을 공급해야할 금정산 자락에 무형의 구도자로 다시금 환생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금정산인임을 붓끝에 달고 다니셨는지도 모릅니다. 붓끝에 먹물로 머금다 글씨로 불러주던 스님의 법문과 금정산 사모곡은 이제 스님의 귀의처가 되었습니다.



▲ 큰스님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이 금정산 범어사 경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방방곡곡 전국에 계신 스님들도 다 함께 하신 듯하니 스님의 큰 그늘이 느껴집니다.

살아생전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삶을 내생에서도 유지하려는 듯 임종게 하나 남기지 않으셨기에 가슴에 간직해도 좋을 법한 스님의 귀한 말씀 있어 이를 소개하며 통곡 같은 108 배를 올립니다.

큰스님이 써주신 행복해지고 부자 되는 부적, "오유지족"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명예를 얻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맛난 것을 먹거나 예쁜 옷을 입고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하면서도 손쉬운 행복의 비결은 바로 '만족할 줄 아는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스님께선 글로 주셨습니다.



▲ 금정산 계곡은 조문객과 만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하나 오라로 하지 않았어도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이 골짜기를 메우고도 넘쳤습니다.

스님께서는 행복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열쇠를 부적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적 같은 좋은 말들은 참 많습니다. 욕심을 적게 갖고 만족할 줄 알라는 '소욕지족(小慾知足)', 부질없는 욕심 끊고 구하는 게 없으면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일컫는 '단욕무구(斷慾無求)'도 있지만, 스님께서는 오유지족(吾唯知足)이란 글을 써주신 겁니다.



▲ 스님의 연화대는 돌무덤처럼 덩그런 형태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난스럽지 않고 수수하면서도 역시 깔끔하다는 느낌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한 끝에 얻어지는 결과에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할 줄 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름 피우고 무위도식하며 얻어진 결과에 만족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음을 자부할 수 있는 일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만족해하라고 하셨습니다.



▲ 스님의 법구가 돌무덤형태의 연화대에 모셔졌습니다. 바닥에 숯이 깔리고 법구가 모셔졌습니다. 그 옆으로 다시 숯이 채워졌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볼품없는 먹거리나 불편한 생활수준이 될지라도, 이만큼 노력해 이만한 먹거리를 마련하고 이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 하며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의 공간을 열게 되는 비결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배워 머릿속에 좋은 글귀 많이 간직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식하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만족해 할 줄 모른다면 그 자체가 불행으로 가고 있음이며 가난한 천성이라고 하셨습니다.



▲ 돌무덤 연화대에 스님의 법구가 모셔지고 스님이 마지막으로 타셨던 상여를 올려놓고 거화를 하였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에 대한 채찍과 감시는 조금도 늦추거나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게으른 마음을 합리화하는 데 오유지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결과에 오유지족하라고 하셨습니다.

▲ 스님은 그렇게, 뜨거운 불꽃 한번 내지 않고 모락모락 연기처럼 한줌의 재가 되어 그렇게 오매불망 하시던 부처님 나라로, 금정산인으로 귀토 하셨습니다.

스님은 큰스님이셨지만 결코 도도히 높기만 하거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스님이 아니셨습니다. 신도들과 함께 앉아 기도하고 신도들과 언제고 담소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차를 마시다 아가들이 다가오면 아가들에게 불어 식힌 차를 먹여주고 다과를 건네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도들이 삼배를 올리려면 일배를 말씀하시고, 어렵지 않게 다가가 좋은 글 써달라고 하면 기꺼이 써 주시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스님의 글은 팔만사천 부처님 가르침처럼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 살아생전 어렵지 않고 그렇게 높게만 보이지 않던 스님이 진정 저만치 높고 크게 보이는 까닭은 진정으로 큰스님이셨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님은 큰스님이셨지만 결코 도도히 높기만 하거나 멀기만 한 그런 스님이 아니셨습니다. 신도들과 함께 앉아 기도하고 신도들과 언제고 담소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살아생전 어렵지 않고 그렇게 높게만 보이지 않던 스님이 정녕 저만치 높고 크게 보이는 까닭은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큰스님이셨기 때문일 겁니다.

임윤수(zzzohmy) 기자

불교신문 사설: ‘恒隨諸佛’의 귀감 석주 큰스님

조계종 원로 석주당 정일 큰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세수 95 세 법랍 81 세로 세연을 다하신 스님은 보통사람으로서 누리기 어려운 80 여년의 세월을 수행자로 살면서 큰 족적을 한국불교사에 남겼다. 그분의 업적이 하도 찬란하기에 떠나고 텅빈 자리가 너무나 크고 넓다.

큰스님의 빈자리에 채워졌던 술한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일이 남은 사부대중의 몫이라.

스님의 한평생은 ‘항수제불(恒隨諸佛)’로 요약할 수 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곱씹고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일이 후학의 일이 될 것이다. ‘항수제불’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있는 보현보살의 10 대원을 스님께서 한마디로 뭉뚱그린 말이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禮敬諸佛), 부처님을 찬탄하고(稱讚如來), 널리 공양하며(廣修供養), 업장을 참회하고(懺悔業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隨喜功德).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며(請轉法輪),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請佛住世).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恒隨佛學),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恒順衆生). 끝으로 이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한다(普皆廻向). 이 열 가지 큰 행원을 모든 불자들은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석주 큰스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오늘의 혁신되고 안정된 종단에서 역경과 포교사업을 수행해가고 있다. ‘모든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스님처럼 평생을 올곧게 하기란 어렵다. 불심이 흐려지고 종단이 흔들릴 때마다 스님은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흐려진 불심을 바로 잡아주시고 종단을 제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고 할 일은 끝이 없는 이 때 이끌어 주고 채찍질 해줄 큰스님이 열반에 드셔서 막막한 심정은 드러낼 길이 없다. 그 큰 가르침과 한량없는 은혜를 갚는 길은 ‘모든 부처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것뿐이다.

[불교신문 2081 호/ 11 월 19 일자 사설]

--

교리공부: 사무량심

중생을 향한 보살의 네 가지 광대한 마음

사무량심(四無量心)이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기 위해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 광대한 마음이다. 자비희사(慈悲喜捨) 네 가지 마음을 무량으로 일으켜, 무량의 사람들을 깨우침으로 이끄는 것을 뜻한다. 무량심은 모두 이타의 마음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의 방편이기도 하다.

자무량심(慈無量心)은 자비를 주는 것이 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으로, 자기가 받은 즐거움을 먼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널리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이다.

비무량심(悲無量心)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해내어 깨달음의 해탈을 주려는 마음이다.

희무량심(喜無量心)은 다른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이다. 보살의 마음은 일체에 대자대비의 마음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생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사무량심(捨無量心)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미움이나 가까움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다만 중생을 생각할 뿐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 이 마음을 일으키고 점차 친한 사람과 미운 사람에게까지 평등하게 마음을 낸다. 사무량심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과 실천을 담고 있다. 자비가 사상이라면 희사는 실천이다. 〈유마경〉 14 권에 따르면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중생에게 한없는 복을 가져다주고 스스로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한다.

법회소식 NEWS

- 을유년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2005 년에도 2004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에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법 많이 합시다.
-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2548 년 성도재일은 양력으로 2005 년 1 월 17 일 (양력 12 월 8 일)입니다. 12 월 8 일은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어 사생자부, 과거 현재 미래와 우주의 대 스승의 되신날 입니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에서는 대한 불교 조계종의 전통에 따라서 15 일부터 16 일까지 철야 용맹정진이 있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부처님의 대각을 이루신 뜻을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야기도는 1 월 15 일 토요일 저녁 9 시에 입재해서 다음날인 1 월 16 일 새벽 6 시에 아침예불과 함께 회향 합니다. 이날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니련선하 강가에서 수자타에게서 유미죽을 공양을 받으시고 마지막 정진에 들었던 유미죽 공양도 불국사에서 있겠습니다. 1 월 셋째주 법회는 부처님 성도재일 철야 정진으로 대체하므로 법회는 쉽니다. 단 전법의 등 축원은 4 짜주에 인등기도 축원과 같이 있습니다.
- 성도재일 철야 기도 입재: 1 월 15 일 저녁 9 시
성도재일 철야 기도 회향: 1 월 16 일 아침 6 시
- 1 월 법회는 사찰의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첫째주 일요일, 둘째주 일요일, 그리고 다섯째주 일요일은 사찰에서 갖는 법회는 쉽니다. 신도님들은 각자 집에서 기도정진해 주십시오. 셋째주 법회는 성도재일 철야 정진 법회로 대신합니다. 인등기도와 전법의등 법회는 넷째주에 있습니다. 법회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 월 9 일이 음력으로 설날입니다. 불국사에서는 2 월 6 일 첫째주 일요일 초하루 기도 법회와 민속놀이 중의 하나인 윷놀이 등이 있겠습니다.
- 불국사의 정신적인 지주이신 강석주 큰스님의 49 제가 양력으로 1 월 1 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에서 봉행합니다. 서울에 계신 불자님들 중에서 큰스님 49 제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봉은사 법당으로 와 주십시오. 불국사 주지스님도 큰스님의 49 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12 월 27 일부터 1 월 14 일까지 한국에 일시 귀국합니다. 주지 스님이 안계시는 동안 불국사는 안소혜 불자님과 Daniel 불자님께서 사찰 안팎으로 두루 두루 수고해 주십니다. 스님이 안계시는동안 불국사에 연락을 취하실 불자님들께서는 흥법회장님 (619-632-5879), 보광 총무님 (573-308-1391), 또는 안소혜 불자님 (314-363-7643) 께 연락 주십시오.
- 12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6 번 계미생 심우진, 208 번 신유생 유두남, 209 번 계해생 유덕남, 210 번 신유생 안석성, 211 번 을축생 안수연, 212 번 병인생 안인성, 213 번 계유생 오두혁, 214 번 기묘생 오가연, 215 번 병신생 임승덕, 216 번 신유생 최도현, 217 번 계미생 전태영, 218 번 갑신생 전태현, 219 번 계해생 전동욱, 220 번 정묘생 전서희, 221 번 기유생 박민규, 222 번 경술생 김민정, 223 번 무인생 고민석, 224 번 신사생 고지우, 225 번 계묘생 양보경, 226 번 경자생 보명심 ; 10 월 신규 전법의 등 동참자 4 번 정미생 김동숙, 5 번 무오생 남성희 - 인등기도 및 전법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월에는 여러가지 사찰의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인등 기도과 전법의 등 기도는 넷째주에 있습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는 지붕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